

〈국외출장보고서〉

**미국공중보건학회(American Public Health  
Association) 포스터 발표 및 학회참석**

**2007년 11월 3일 - 2007년 11월 9일**

**출장자: 신호성**

<출장 목적>

- 미국 공중보건학회에 참석하여 ‘Health Inequality Measurement Using EuroQol-5 Dimension Valuation Weights’ 포스터 발표 및 학회에서 발표될 최신의 보건의료 정책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고자 함.
- 치과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하여 시카고 소재 미국치과의사회(American Dental Association)을 방문하여 치과신임평가에 대한 자료 및 미국 치과신임평가에 동향을 검토함. 병원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활용 등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아이디어 수집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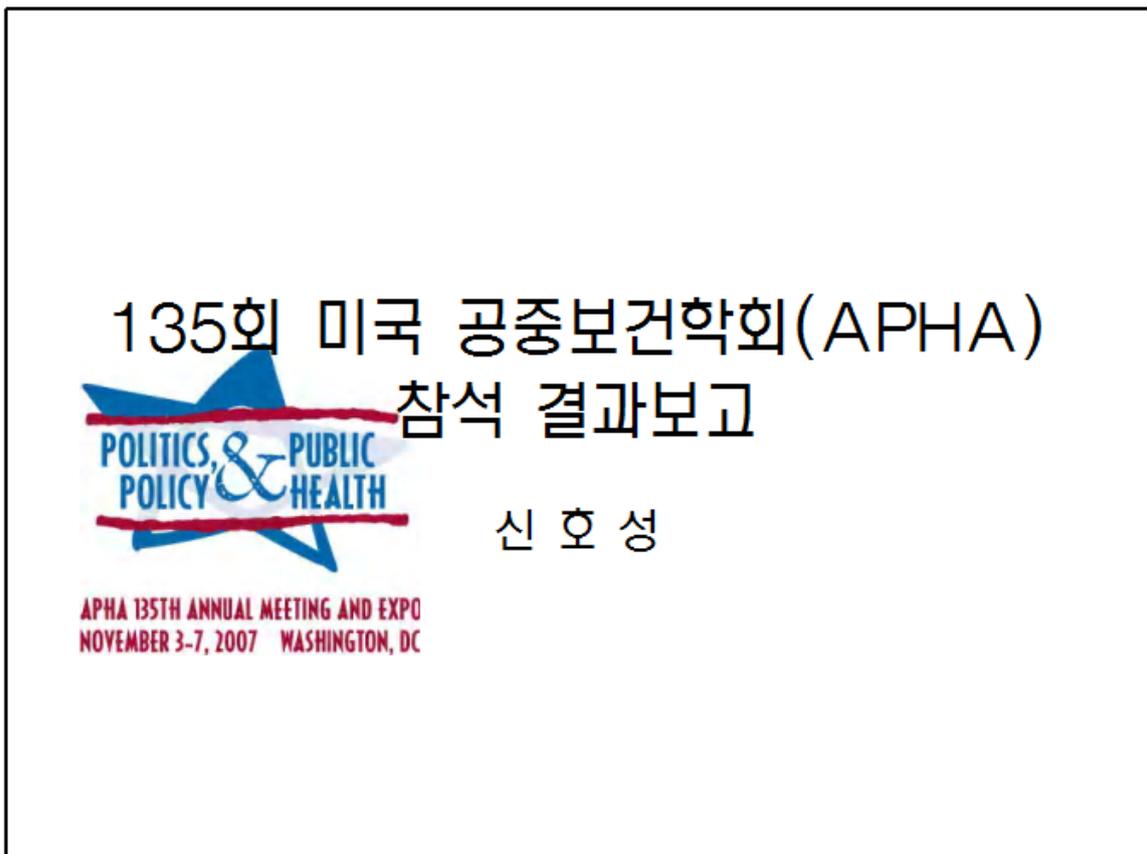
<일정개요>

일자	행 선 지 (국가/도시)	방문기관/면담 자	활 동 사 항
2007. 11. 3(토)	인천-미국 시카고		이동
11. 3(토)	시카고	김진숙	Northern Illinois University 방문
11. 4(일)	시카고-워싱턴		이동
11. 4(일)	미국 워싱턴	미국공중보건학 회	학회 참석
11. 5(월)	"	"	포스터 발표 및 학회 참석
11. 6(화)	워싱턴-시카고		이동
11. 7(수)~11.9(금)	시카고	CODA director Dr. Anthony J. Ziebert	American Dental Association 방문
11. 11(일)	시카고-인천		이동

< 세부내용 >

1. 미국 135회 공중보건학회 발표내용 및 학회 주요 발표내용

- 135회 미국공중보건학회는 Politics, Policy and Public Health란 주제 하에 미국 Washington DC에서 11월 4일-11월 7일까지 개최되었음.
-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공중보건학적 대책이 주요한 관심사를 이루었음.
- 학회는 section 24개, APHA 협회 주관 행사 31개, SPIG (Special Primary Interest Group) 8개, Caucus(주로 minority들의 주요관심 연구자 모임) 17개, Forum 2개로 진행되었음.
- 이외에 job marketing, Expo 등의 행사가 개최됨.
- 학회 발표자료와 기후변화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Special session 내용소개는 MS ppt파일로 첨부함.



-포스터 발표 자료

# Health Inequality Measurement Using EuroQol-5 Dimension Valuation Weights

Hosung Shin PhD, Dongjin Kim MS  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
shinhosung@gmail.com

- 136회 미국공중보건학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Public Health Without Borders란 주제로 2008년 10월 25-29일 열리며 발표를 원할시 2008년 2월 8일까지 abstracts를 제출하여야 함.

<미국공중보건학회 참석과 관련한 시사점>

- 세계적으로 기후변화(기온상승, 해수면 상승, 홍수, 태풍, 가뭄 등)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이 보건의료정책 최대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.
- 지구온난화의 과정이 주로 CO2 대기가스 배출억제 차원의 정책에서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이동중임.
- 연구원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준비성(preparedness)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것임,

<미국 치과의사회 치과신임위원회 방문>

American Dental Association,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(CODA)

- 미국치과의사회 치과신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치과신임위원회 Dr. Director Anthony J. Ziebert와 Peggy Soeldner를 접견함.
- 주로 미국 졸업후 교육 중 일차치과의사 양성과 관련한 수련기관 신임평가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수집함.
- 미국의 졸업후 수련 프로그램 중에서 일차치과의사 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AEGD, GPR이 있음.
- 2008년 1월부터 새로 개정된 표준안이 사용됨.
- 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졸업 후 필수는 아니지만 1-2년 과정의 일반치의사수련 과정이 존재함. AEGD는 지역사회에서 일차치과의사로서 일할 치과의사들을 위한 수련교육이며 GPR은 병원급 이상에서 다른 진료과들과 함께(협진이 요구되는)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졸업후 프로그램임.
- 미국은 일반치의사임상수련(General Practice Residency, GPR) 또는 일반치의사심화교육(Advanced Education in General Dentistry, AEGD)이라고 칭하며, 총 전공의 수 5247명(2003년 현재)의 33%인 1707명이 일반치과의사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음.
- 오늘날의 GPR이나 AEGD에 해당하는 일반치과의사 수련프로그램은 치과대학 졸업생에게 수련의 기회와 개업을 준비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수행함.
- 일반치과의사수련 프로그램의 평균 수련기간은 13개월이며 다른 졸업 후 수련 프로그램 보다 짧음. 치열교정과는 29개월, 보철과 31개월, 구강외과 54개월 치주과 35개월, 근관치료과는 25개월임.
- AEGD 및 GPR의 등록비는 연 \$500 미만으로 수련프로그램의 평균 등록금 (\$8,250)보다 적고, 보수는 연 \$31,000 이상으로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 평균 (\$22,994)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함.
- 미국 전국적으로 GPR 프로그램은 200개, AEGD 프로그램은 100여개 운영되고 있음.

<미국 일차치과의사양성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>

-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이 중시되는 시점에 일차치과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졸업후 수련교육은 치과의료 인력 관리 및 양성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.

- 우리나라 치과대학이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어 일반대학 졸업자들을 입학생으로 받고 있지만 이들이 입학 이전에 치과치료와 관련된 학업이나 수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4년간의 치과교육 후 지역사회에 투입되게 됨. 따라서 졸업과 함께 바로 지역사회에 투입되는 치과 의사의 의료 질에 대한 염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- 현행 치과 의사전문의제도는 일차치과 의사의 양정보다 치과 의사 전문의 양성에 목적이 있음. 인턴 1년 전공의 3년간의 치과 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중 인턴 1년 과정은 일차치과 의사 양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못함. 오히려 치과 의사전문의 과정의 첫해에 맞는 교육내용과 임상실습이 주를 이룸. 따라서 인턴수련이 일차치과 의사 양성프로그램의 대안이 될 수 없음.
- 향후 졸업 후 일차치과 의사 양성 프로그램의 도입을 논의하게 될 때 미국의 사례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임.